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⑯ 벨기에 브뤼셀 마그리트미술관

초현실주의 대가 마그리트의 삶과 작품세계 집대성

브뤼셀=정상필 EU특파원

에너지 그룹 후원으로 문 열어
5개층 중 2개층 도서관·강의실
전기 100% 태양열 모듈 활용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1898~1967)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세계 최초로 지난 6월2일 벨기에 브뤼셀(Bruxelles)에서 문을 열었다. 벨기에 왕립미술관(Musees royaux des beaux-arts de Belgique)의 일부로 사용되던 19세기 건물이 8개월 간의 공사 끝에 마그리트 미술관(Musee Magritte Museum)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소장품 규모는 마그리트의 회화, 데생 등 250점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연구기능 등을 포함해 마그리트의 모든 것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마그리트 미술관은 마그리트의 작품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벨기에 왕립미술관, 사망 100주년에 맞춰 설립된 마그리트 재단, 벨기에 정부,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한 메세나 그룹의 합작품이다. 미술관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전체 공사비 750만 유로(약 132억원)의 대부분인 650만 유로(약 115억원)를 프랑스-벨기에계 에너지 그룹인 GDF SUEZ가 후원했다. 벨기에에서는 유례없이 큰 규모의 기업 차원의 예술 후원이다.

브뤼셀의 중심인 구도심의 로열 광장에 위치한 벨기에 왕립미술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객들을 연계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다. 두 미술관 모두를 관람할 경우 티켓 할인의 혜택도 있다. 미술관 측은 "지난 8일 오전 개관 이래 10만명 째 관람객이 입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천300명 꼴로 이와 같은 추세라면 첫 해 연간 관람객 수는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의 연간 관람객이 50만명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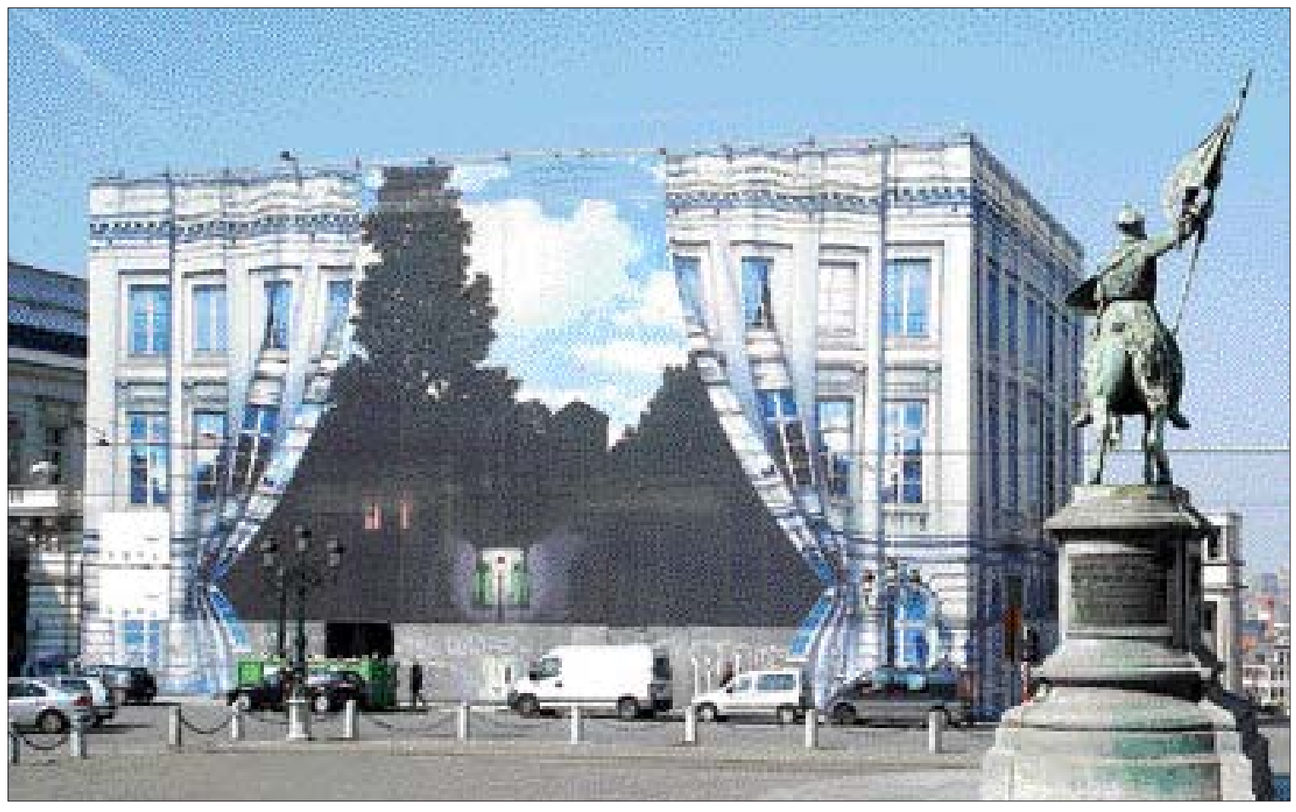
마그리트 미술관은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 베른의 폴 클레 센터가 롤모델이다. 반 고흐 미술관은 많은 관람객(연간 150만명 가량)을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폴 클레 센터는 전시 기능 외의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2천500㎡ 넓이의 5층 규모인 미술관은 3개층에서 마그리트의 회화와 데생, 편지, 광고 작품 등 250점을 상설전시하고 나머지 2개층을 도서관, 강의실, 기념품 가게, 레스토랑 등으로 이용한다.

각 전시실은 마그리트의 연대기로 시작한다. 해당 시기에 작가가 그린 작품이 전시돼 있고, 작품 사이사이에 그의 메모나 편지, 사진, 동영상, 대화록 등이 함께 놓여 있다. 마그리트의 청년 시절 돈을 벌기 위해 그렸던 광고 포스터도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전시실을 모두 돌고난 관람객들은 한 권의 전기(傳記)을 읽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미술관 설립을 주도한 미쉘 드라게(Michel Draguet) 벨기에 왕립미술관장은 "마그리트 미술관은 '전기'라는 문학적 테마까지 포함한 (마그리트라는) 주제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브뤼셀 자유 대학의 르네 마그리트 연구센터와도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마그리트의 삶과 사상, 작품을 알기 위해서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있다. 나아가 초현실주의 연구의 첨병을 자초하고 있다.

후원 그룹인 GDF SUEZ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미술관에 도입했다. 미술관 옥상에 설치된 대형 태양열 모듈을 이용해 미술관 내 전기는 100% 녹색 에너지로 사용되고, 작품 보존에 가장 적절한 조건의 빛, 온·습도 등이 제공된다. 이중 벽으로 된 전시실 내의 LED 화면은 관람객의 관람 속도에 따라 다른 화면을 내보낸다. 외부로 난 창문 중 5개에는 LED를 달아 마그리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파란 하늘의 하얀 구름이 움직이도록 했다. 누가 봐도 마그리트와 관련된 건물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술관 전시를 총감독한 윈스턴 스프리트는 "마그리트 부인이 살아 있을 때 마그리트가 살았던 르뷔셀의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인테리어와 마그리트 작품의 창조성이 대조를 이룬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詩)적인 그의 작품과 비밀스러운 배치 사이의 조화를 이뤄보려 했다"고 말했다. 온통 검정으로 도배돼 음침한 느낌마저 드는 전시실 벽이 마그리트의 작품이 주는 신비감과 맞닿아 있다. /camus@kwangju.co.kr



브뤼셀 구도심의 로열 광장과 마그리트 미술관 개관 전 모습. 미술관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마그리트 작품 '빛의 제국'을 주제로 한 가림막이 내걸렸다.

벨기에 브뤼셀의 마그리트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이 전시실 입구에 걸린 작가의 연대기를 보고 있다.

공상·무의식의 세계 회화…팝아트 등 현대미술에 큰 영향

■ 르네 마그리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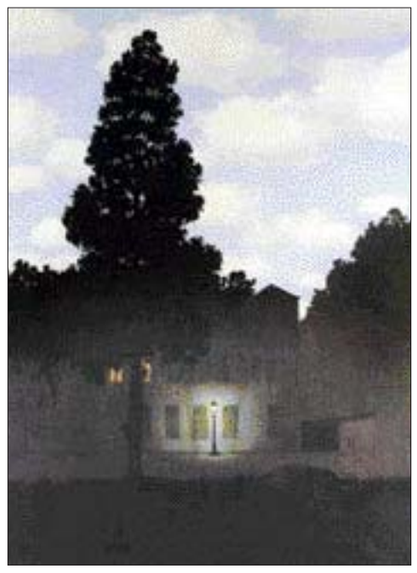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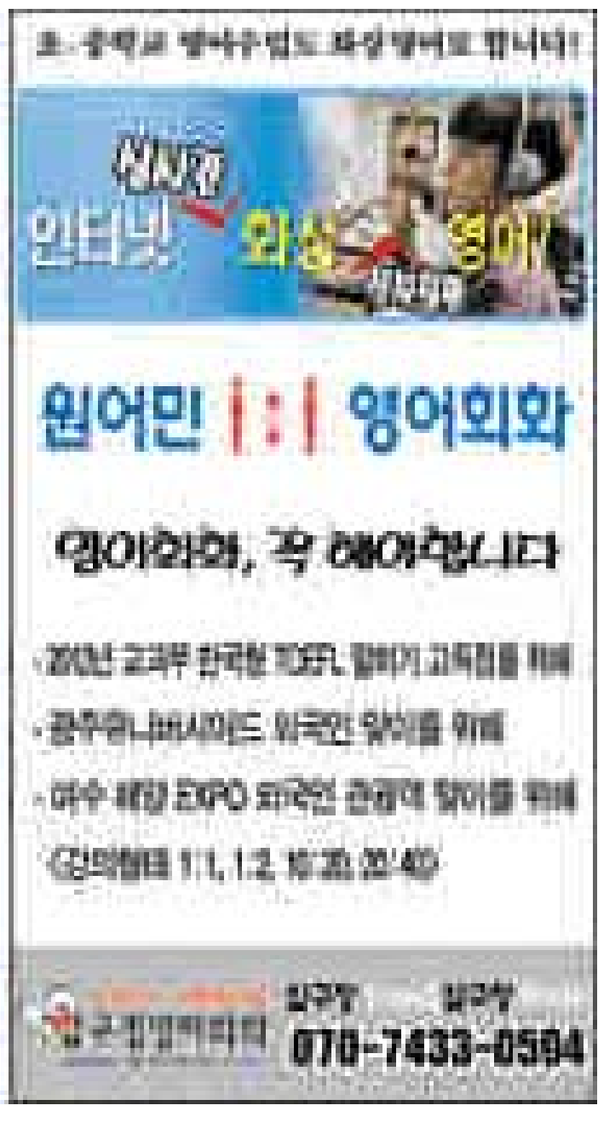
허공에 둥둥 떠 있는 바위 덩어리, 등(燈) 하나가 간신히 어둠을 비추는 밤의 저택과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선명한 낮의 하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귀 위의 큼지막한 파이프…. 오브제 하나하나는 지극히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돼 있지만 전체를 보면 도무지 말이 되질 않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상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회화로 표현한 초현실주의의 대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들이다.

마그리트는 벨기에 서남부 레씬(Lessines)에서 태어나 브뤼셀에서 사망했다. 벨기에 왕립순수미술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마그리트는 다다이즘, 몽환적 화풍의 이탈리아 화가 키리코(Giorgio de Chirico·1888~1978) 등의 영향을 받았다. 벨기에 초현실주의자 그룹과 교제한 뒤 파리에 정착, 앙드레 브르통 등과 본격적으로 초현실주의 운동에 동참한다. 이후 벨기에로 돌아와 인상주의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의 기법을 도입한 작업을 하기도 했다.

고정관념을 깨는 그의 그림은 팝아트 등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가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졌던 것은 대상과 재현 사이의 괴리였다.

대표작 중 하나인 '이미지의 배반 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와 관련해 그는 "이 유명한 파이프를 두고 나에게 불만이 많다. 그러나 당신은 (그림 속) 파이프에 담배를 채워넣을수 있는가? 아니다. 이것은 재현에 불과하다. 내가 만약 '이것은 파이프이다'라고 썼다면 거짓말이 됐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회화는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화가의 생각을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작품 1천여점은 뉴욕 현대미술관(MoMA),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런던 테이트 갤러리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브뤼셀의 마그리트 미술관에 가장 많은 작품이 소장돼 있다.



르네 마그리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빛의 제국'(1954).